



제주지네고사리 / *Dryopteris championii* (Benth.) C.Chr. ex Ching

| 구분 | 설명 |
|------|-----|
| 생물분류 | 식물 |
| 속국명 | 관중속 |
| 과국명 | 면마과 |

| | |
|------|---|
| 과명 | Dryopteridaceae |
| 일반특징 | <p>요약설명 : 면마과 상록다년초로 제주도에 분포한다. 분포지역 : 제주도에 분포한다. 형태 : 상록다년초. 크기 : 높이 50-95cm. 꽃색 : 갈색 개화기 : 9월,8월,10월,7월 잎이 모여나고, 잎자루는 큰 잎자루와 더불어 비늘조각이 촘촘하게 달려 있다. 비늘조각은 적갈색 또는 갈색이고, 얇은 막처럼 되어 있으며 밋밋하다. 또한 밑부분에는 가시 같은 돌기가 있다. 선 같은 삼각형 또는 창처럼 생긴 삼각형이지만 작은 것은 달걀 같은 삼각형이며 끝이 길게 뾰족해진다. 잎몸은 달걀 모양 또는 긴 타원 같은 달걀모양이다. 이회깃모양겹잎이고 밑부분이 가장 넓다. 깃털 모양 조각은 선 같은 창 모양이고 대가 짧으며 끝이 뾰족하다. 잔깃조각은 긴 타원 같은 달걀 모양이며 원두 또는 둔두이고 원저 또는 밑부분이 뾰족하다. 겉면에 털이 없고 뒷면 굵은 맥에 주머니 같은 비늘조각과 평평한 비늘조각이 달린다. 흩씨주머니 무리는 가장자리에 가깝게 달리지만 중간에 달리는 것도 있다. 흩씨주머니 무리를 덮고 있는 막은 둥근 콩팥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뿌리줄기는 비스듬히 뻗으며 짙은 갈색 또는 진한 밤색의 창 모양 비늘조각이 촘촘하게 달려있다. 산비탈, 숲 속, 도랑가의 그늘지고 습기 찬 돌 틈에서 자란다. 얽은지네고사리는 잎자루와 큰 잎자루의 비늘조각이 흑갈색이며 제주도에서 자란다.</p> |